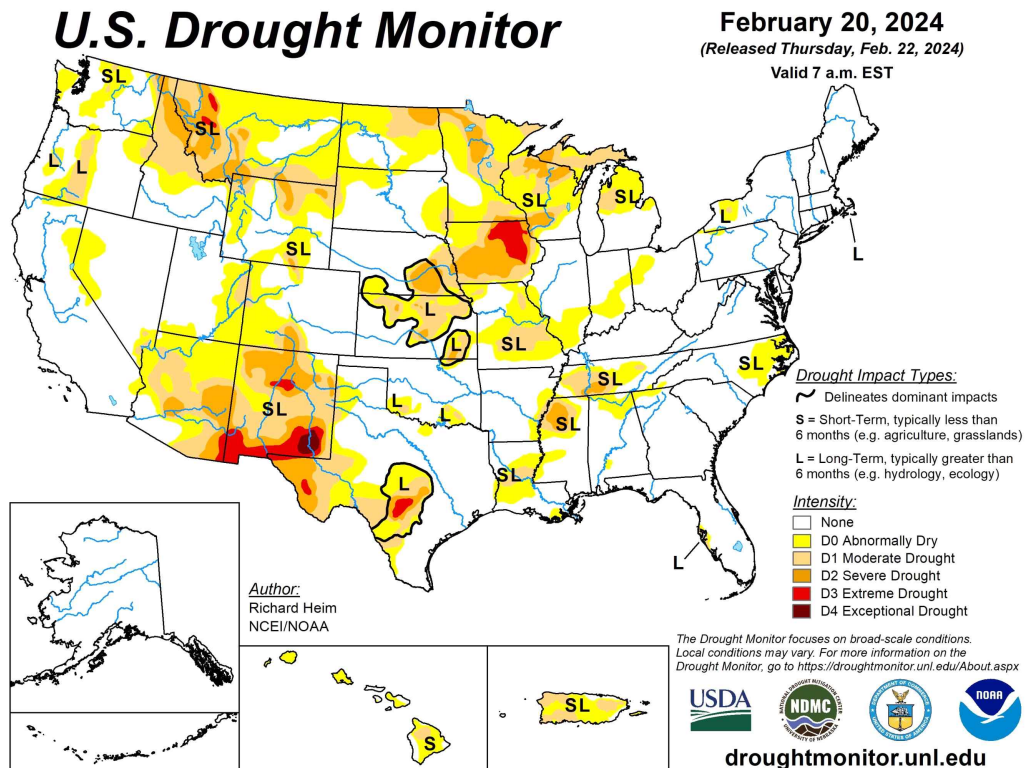


2월 2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9)

□ 미국 기후 현황(2/18-2/24)

전국적으로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중부 지방을 지배했고 동부와 서부 일부 지역에만 상당한 강수가 있었다. 미국 중부의 맑은 날씨는 파종 전 현장 작업을 포함한 옥외 활동에 유리했다. 실제로 답사우스 전역에서 파종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온기가 나라의 대략 남쪽 절반에서 겨울 밀이 휴면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었고 남부 지역에서는 이 작물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오하이오와 테네시 계곡을 가로질러 및 인근 지역에 비가 잠시 내렸고 몇 곳에서는 2월 22일 현재 강수량이 1인치가 넘었다. 그보다 앞서 주초에는 플로리다 반도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 외에 서부에 내린 강수량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가장 많았고 태평양 북서부, 대분지, 서부 산간지 그리고 로키산맥 북부로 확장되면서는 더 적은 양이 내렸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따르면 시에라레바다 설피빙원의 물 등량이 18인치 넘게 올라갔는데 이는 2월말 평균의 80 퍼센트 이상이다. 북부 및 중부 평원과 중서부 북부를 가로질러 주간 평균 기온은 일반적으로 평년보다 10-20° F 높았다. 서부 대부분뿐만 아니라 평원과 중서부의 나머지 지역도 평년 이상의 기온으로 덮였다. 대조적으로 평년보다 선선한 조건은 주로 남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으로 국한되었다. 대서양 남부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지점들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

자료 없음

## □ 세계 기후 현황(2/18-2/24)

### ■ 유럽:

이례적이고 기록적인 2월의 더위가 3주 연속 대륙 전체에서 지속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유럽 대부분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7° C 높아서 동부에서는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의 녹화를 그리고 서부와 남부에서는 영양 성장을 가속화했다. 2월 24일 현재 2월의 기온이 대륙 대부분에서 지난 30년 동안 단연 가장 따뜻하여, 현재까지의 월 평균 기온이 폴란드와 발칸반도에서 각각 평년보다 5° C 및 6° C 넘게 높았다. ‘유럽 대규모 폭풍 연구소’가 낸 수많은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와 북부에서부터 노르웨이와 스웨덴까지 파괴적인 돌풍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된 중간 내지 강한 소나기 (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중유럽과 북유럽에서 봄 성장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해주었다. 반대로 유럽 남동부 다뉴브 강 계곡의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절 현장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단기 강우 부족과 토양 수분 손실을 가중시켰다; 특히 루마니아 남동부와 불가리아 북동부에서 30일 강우량 기록은 평년의 불과 10% 이하에 그쳤다.

### ■ 구소련(서부):

서쪽에서는 이례적인 따뜻함이 지속된 것과 대조적으로 더 먼 동쪽에서는 더 추운 날씨를 보였다. 최근의 기록적인 2월의 따뜻함이 러시아에서는 누그러져서 남부 지방에서는 지난 주 평균 기온이 거의 평년 수준이었고 불가 지역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10° C 낮았다. 러시아 남부에서는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겨울 밀이 계절에 맞지 않게 조기 녹화되는 것이 느껴지거나 멈췄고 러시아 중서부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들이 휴면 상태를 유지했다. 서쪽에서는 점차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5° C 높았고 한편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 및 벨로루시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최고 7° C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서부와 최남단 지역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게 이른 겨울 작물의 녹화가 계속되었다. 한편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대부분에서는 지난 90일 동안 평년에 가깝거나 이를 웃도는 강수가 봄 생육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켰고 몰도바와 주변 지역에서는 30일 총 강우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 동아시아:

자료 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고립된 소나기 (5-15 mm 이상)가 내려서 지역의 미성숙한 건조지 여름작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나 다른 곳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가장 먼저 심은 수수의 성숙과 수확에 유리했다. 많은 곳에서 비가 부족하여 지역의 관개 필요성도 증가했을 수 있다. 더 남쪽으로 뉴사우스웨일즈에 내린 보다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 이상)는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을 위해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했고 한편 건조한 날씨 기간 동안 현장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호주 동부를 덮어서 작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으나 호주의 남부와 서부는 더운 날씨로 덮였다. 동부에서는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후반이었고 남부와 서부에서는 30도 후반에서 40도 중반 사이였다. 4월까지의 겨울 작물의 파종이 시작되지 않겠지만 증발율을 줄이고 파종 전 수분 공급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더 서늘한 날씨가 환영받을 것이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많은 주요 생산 지역에 있는 미성숙한 여름작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내린 총 강우량은 10 mm 이었고 지역적으로는 50 mm 이상인 곳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강우량들 가운데 일부는 (50 mm 초과) 코르도바에 집중했다. 동부 농업 지역들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부에서부터 포모사까지)에 내린 강우량은, 몇 주간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수분 보유량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했지만, 이보다 적었다 (대체로 10 mm 미만).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높았고 아르헨티나 중부의 다수확 농업 지역들 (라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코르도바에서부터 엔트레리오스까지의 인근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중반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22일 현재 해바라기는 19 퍼센트 (작년은 24 퍼센트) 수확되었다; 더 일찍 성숙하는 북부 생산 지역에서는 현장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라팜파에서는 아직 수확이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나중에 심은 여름작물들은 개선된 조건 덕분에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브라질:

국지적으로 폭우를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때문에 미성숙한 여름작물에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었다. 총 강우량이 25 mm에서 100 mm를 넘어가는 강우가 마투그로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있는 한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미나스제라이스처럼 먼 남쪽으로 거의 모든 주요 내륙 및 해안 농업 지역들에까지 미쳤다. 평년의 1° C 이내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초중반에 도달)였던 평균 기온이 대체로 계절적 조건 하에 있는 작물들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2월 23일 현재 대두는 작년 속도보다 4 포인트 앞서 76 퍼센트 수확되었다; 옥수수 파종은 80 퍼센트 완료되었는데 작년은 73 퍼센트였고 5년 평균치는 75 퍼센트였다. 파라나 대부분에서 25 mm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더 남쪽은 강우가 고르지 못하여 마투그로수두술 남부와 상파울루에서부터 남쪽으로 히우그란지두술을 거쳐 내린 총 강우량은 5-50 mm 이었다. 또한,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1-3° C 높은 기온 때문에 증발 손실 수준이 높게 유지되었는데 특히 낮 최고 기온이 30도 중반에 도달한 서부와 북부 지점들에서 그러했다. 히우그란지두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2월 22일 현재 65 퍼센트 수확되었다; 한편 대두의 약 85 퍼센트가 개화했고 3 퍼센트가 성숙했다. 파라나에서는 초작 옥수수와 대두가 2월 19일 현재 각각 55 및 42 퍼센트 수확되었다; 2기작 옥수수는 55 퍼센트 파종되었다.